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2019년 4월과 5월을 살며

21세기 현대는 초고속정보화사화다. 지난 세기의 10년 변화보다 금세기 1년의 변화가 훨씬 크다. 갈수록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는 빠르기만 하다. 혁기증진은 변혁과 경쟁(激競)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2019년 4월을 살고 있다.

나는 해마다 4월이 되면 내가 시인이어서 그런지, 영국의 시인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의 시 '황무지(荒無地, The Waste Land)'를 생각한다. 국가와 사람들은 편을 쪘서 무자비하게 서로 죽이고 죽이며 적대와 살기(殺氣)로 맞았던 제1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난 후의 유럽의 신앙적 허무와 정신적 황폐를 묘사한 걸작이다. 폐허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희망과 구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4월은 가장 진인한 달 / 죽은 땅에서 / 리얼락꽃을 피우고 /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 봄비로 잡든 뿌리를 깨운다 // 겨울은 차

리리 따뜻했다 / 망각의 눈(雪)으로 대지를 덮고 / 메마른 구근(球根)으로 가냘픈 목숨을 길러주었다(‘황무지’의 일부).

이승만 장기 독재와 부정 선거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국가권력이라는 거대 악(惡)에 맞서 싸웠던 4·19민주혁명 5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리는 나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묘지과 영안 봉안 소를 물러보았다.

해마다 참석하는 기념식이지만 해마다 강회가 다른 것은 나만의 감상일 것인가.

5월은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처님 오신 날(12일), 스승의 날(15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18일), 성년의 날(20일), 부부의 날(21일), 방재(防災)의 날(25일), 바다의 날(31일) 등 감사와 사랑과 생명의 달이다. 이 날 중에서 자기

와 연관된 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세상사가 고려하듯이, 자기의 입장과 관계에 따라서 더욱 관심과 강회가 큰 날이 있다.

근래 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오면 남다른 강회에 찾는다. 5·18민중항쟁 당시, 항쟁 지도부를 이끌며 시민군 대변인으로 외신(外信) 기자 회견도 했고, 5월 27일 새벽 중무장한 계엄군의 진압에 항거하여 전남도청을 사수하다가 현장에서 정렬하게 산화(散華)한 윤상원 열사가 고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이다. 광주살례시오고 등학교 3학년 3반 친구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정치적·법적·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일이다. 39년이 지난 지금도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주동한 폭동이었으나, 유공자들은 새금을 죽내는 괴물집단이라는 등 망언(妄言)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있

다.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인간의 털을 쓰고 저릴 수도 있는 것인가. ‘내가 이런 소릴 들을려고 인간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와 부정에 맞서 젊은 대학생들이 피를 바친 투쟁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은 5·16군사쿠데타로 시작된 장기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피를 바친 항쟁이다. 민주와 자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진보는 위대했다.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30·50클럽’에 7번째 가입국이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은 모두 국민지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였고, 우리나라만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민주주의, 경제력, 교육력, 군사력 등 종합적 국력에서 세계 11위다. 대통령을 끊고 반도로 들어와서 남북으로 나누어 전장을 하고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으로 두 동강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좁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화합과 통합은 영원한 미완(未完)의 숙제인가.

社說

마약사범 대처 강화해야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미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내년부터 미약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또 유명연예인과 재벌가의 미약 범죄도 잇따라 적발되면서 일상 속에 침투해 온 미약을 근절하기 위해 다시금 ‘미약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국 내 형사과에 미약조직범죄계를 두고 마약 범죄에 대응해왔다.

미약조직범죄계는 경정급인 계장이 지휘하고 계원도 5명에 불과해 전국의 미약 범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며 경찰 안팎에서는 미약대응 조직의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都	도읍	都 邑 華 夏
邑	읍	▷吳: 도읍(都邑)은 왕성(王城)의 지위(地位)를 말한 것이고, 화하(華夏)는 당시(當時) 중국(中國)을 지칭(指稱)하던 말임.
華	화	
夏	하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대표전화 (062) 224-5800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편집국 (062) 222-5647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팩스 (062) 222-5548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광고국 (062) 222-554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청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외활동 많은 5월,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생명력이 총만한 5월의 싱그러운들과 산봉우리는 우리를 밖으로 유혹한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성년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고 각종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화재관련 안전사고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축제나 기념일을 쟁기기 위해 집을 나설 때는 가스레인지 등 화기위험요소가 안전하지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에서 불법 촬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논·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필히 소각해야 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장비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특히, 석가탄신일(5.12)을 맞아 연등달기 등 불교행사로 화재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건물과 달리 사찰은 대부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른 목조건물로 되어 있고, 경내의 모두 촛불 및 전기 등을 켜놓아 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무엇보다 높은 곳이다. 연등을 달 때에는 전선이 꼬이거나 놀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촛불·

향불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주방 등 화기취급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화기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우리의 소중한 복지문화재가 한줌의 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찰이 산과 근접하여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죽제장 안전사고와 음주 관련 사고다. 죽제에 한꺼번에 많은 시람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아예 나들이를 위한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므로 질서의식과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기분에 취해 술을 마시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특히, 성년의 날(5.20)은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받는 동시에

에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승인받는 날이지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책 입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날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산행시 안전사고이다.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주락사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사고, 산악안전 수칙 미준수 등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으므로 생각하고 살피며 주의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 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비켜주는 양보의식과 죽제장 주변이나 사찰 부근 등 올바른 주·정차 확립으로 최소한의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보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